

Lesson 01 회중점검 모의고사

pp. 68~71

- 01 ④ 02 ③ 03 ⑤ 04 ② 05 ①
 06 ③ 07 Can I join the club, too? 08 ①
 09 ② 10 ② 11 that he got a new job yesterday
 12 ④ 13 ②
 14 to buy some chairs to sit on in the garden 15 ②
 16 play soccer with 17 ④ 18 ⑤
 19 The ancient Egyptians believed in life after death.
 20 ⑤ 21 ③ 22 ③
 23 taking a walk / keeping a diary 24 ④
 25 explain / tips / practice / Egyptian history

- 01 ④는 '흔한, 일반적인'이라는 의미의 유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반의어 관계이다.
 ① 의심하다 : 믿다 ② 밖에 : 안에
 ③ 더 나쁜 : 더 좋은 ⑤ 찌푸리다 : 미소 짓다
- 02 어떤 것에 대해 말해 줌으로써 분명하게 하다 → explain (설명하다)
 review (복습하다): to look at something again to study or check it (공부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무언가를 다시 보다)
 ① 쾌활한: 행복하고 미소로 가득 찬
 ② 달성하다: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다
 ④ 집중하다: 한 가지에 주의를 기울이다
 ⑤ 웅장한: 외관이나 스타일에서 크고 인상적인
- 03 • 나는 매일 일기를 쓴다. (keep a diary: 일기를 쓰다)
 • 비밀을 지켜줄 수 있니? (keep a secret: 비밀을 지키다)
 • 저에게 거리를 뒤편 주세요. (keep a distance: 거리를 두다)
- 04 ② 왜 타이머를 사용하고 싶은지 묻는 물음에 '그거 좋은데.'라고 답하는 것은 어색하다.
- 05 로봇 강아지들을 만들고 함께 가지고 논다고 했으므로 them은 로봇 강아지(robot dogs)를 가리킨다.
- 06 빈도나 정기적인 만남을 묻는 표현이므로 ③이 가장 적절하다.
 ① 네 동아리의 이름은 무엇이니?
 ② 너는 로봇을 어떻게 만드니?
 ③ 동아리는 얼마나 자주 모이니?
 ④ 수요일마다 무엇을 하니?
 ⑤ 너의 동아리는 어디에서 함께 만나니?
- 07 '내가 ~할 수 있니?'라고 물을 때는 「Can I + 동사원형」을 사용한다. '~도'를 표현하기 위해 too를 사용한다.
- 08 aim: 목표, 겨냥점 (= goal)
 ① 올해의 목표 ② 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
 ③ 일정을 지키는 방법 ④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
 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험
- 09 ② write는 자동사로 to write with가 되어야 하며, '펜'은 write with의 목적어이다.
 ① 나는 마실 것이 필요하다.
 ② 나는 쓸 펜이 없다.
 ③ 나의 소원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④ 그녀는 그것에 대해 할 말이 없다.
 ⑤ 그들은 가지고 놀 수 있는 빌딩 블록을 샀다.

- 10 ①③④⑤는 that 뒤에 「주어 + 동사」가 오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이고, ②는 뒤의 명사 idea를 수식하는 지시형용사 that이다.
 ① 그녀는 그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② 나는 그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는다.
 ③ 그는 그 시험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다.
 ④ 그 소식은 그가 영화배우가 되었다는 것이다.
 ⑤ 너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니?
- 11 어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get을 과거시제인 got으로 바꿔 써야 한다.
- 12 ⑥ 대명사 nothing을 수식하는 것은 to부정사이다. (→ to avoid)
 ⑥ 보여 자리에 오는 명사절은 that을 생략할 수 없다. (→ is that ~)
 ④ 주어 자리에 오는 것은 명사나 동명사, to부정사구 혹은 that절 「That + 주어 + 동사」이어야 한다. (→ That he is honest)
 ⑥ 이 문제를 피할 방법은 없다.
 ⑥ 그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⑥ 그의 믿음은 그녀가 항상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다.
 ④ 그가 정직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 13 「명사 + to부정사 + 전치사」: to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동사에 전치사가 함께 쓰이면 그 전치사는 문장 끝에 쓴다. 이때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된다.
 ⑥ a house to live in: 살 집
 ⑥ something warm to put on: 입을 따뜻한 것
 ⑥ a toy to play with: 가지고 놀 장난감
 • 그들은 살 집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 그는 입을 따뜻한 것이 필요하다.
 • 아이들은 가지고 놀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한다.
- 14 「some + 복수명사」로 쓰므로 chair는 복수 형태로 쓴다. 앉을 의자이기 때문에 sit 뒤에 on이 있어야 한다.
- 15 ⑥ 아침이기 때문에 잘 시간이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 (→ get up)
- 16 점심 식사 후 축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질문: 작가는 날씨가 화창할 때 점심 식사 후에 무엇을 할 예정인가?
 → 그녀는 친구들과 축구를 할 것이다.
- 17 ④ 오늘 날씨는 맑다(sunny)고 했다.
- 18 ⑤ ⑥ reach는 도달하다는 의미이며, 여기서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의미이므로 실패했다는 뜻을 가진 failed는 부적절하다.
- 19 '~을 믿다'는 believe in으로 표현하고, '사후의 삶'은 life after death로 표현한다.
- 20 (B)와 ①②③④의 to는 to부정사로 쓰인 to이고, ⑤ look forward to의 to는 목적어인 동명사구를 이끄는 전치사 to이다.
- 21 ⑥ 그 벽화들은 고대 이집트인의 삶을 보여준다. (→ 파라오의 삶)
 ④ 글쓴이의 팀이 경기에서 졌다. (→ 이긴다)
 ⑥ 역사 시간에 글쓴이는 가상으로 이집트 탐험을 한다.
 ⑥ 신 선생님이 파라오에 대해서 설명하신다.
- 22 ⑥ '~하는 동안에'라는 의미로 뒤에 명사를 가지는 단어는 전치사인 during이다.
 ⑥ that이 있으므로 '그 후에'라는 의미가 자연스럽다. after that은 '그 후에'라는 뜻이다.
 ⑥ '자기 전'을 뜻하도록 bed 앞에 before가 들어가야 한다.
- 23 가족과 저녁을 먹고 아빠와 산책을 하고 일기를 쓴 후 잠이 들었다.
- 24 주어진 문장은 '나는 다음 시험에 대해 준비가 된 느낌이야.'라는 의미로 루나가 복습을 도와주고 이에 고맙다는 말을 한 다음인 ④의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 25 글쓴이는 AI 루나에게 수학 문제를 설명해줄기를 요청했고, 루나는 몇 가지 조언과 연습할 문제들을 주었다. 또한, 글쓴이의 추가적인 이집트 역사 공부를 위해 좋은 이집트 역사에 관한 영상 클립들도 추천해 주었다.

01 ③ 02 ④ 03 a → in b → of c → at

04 ② 05 ① 06 ④ 07 ②

08 a keep a water-drinking habit

b drink too much water all at once

c get a cute emoji

09 ⑤ 10 ③ 11 ⑤

12 He has trained for the marathon since spring.

13 My problem is far more important than yours.

14 ⑤ 15 ②, ⑤ 16 ④ 17 ③

18 much less sugar than 19 ②

20 ②, delicious / ⑤, much[far/even/a lot/way]

21 ③ 22 ⑤ 23 ② 24 ④

25 ③, malatang was too salty for me

01 ③은 '좋이다 : 놀리다'라는 반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다.

① 전체의 ② 친절한 ④ 완수하다 ⑤ 도움이 되다

02 ① 당신의 건강을 위해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라.

② 그 임무는 쉬는 시간 없이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다.

③ 너무 많은 소금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④ 그는 폰을 잠그는(→ 잠금을 푸는, unlock) 것을 잊어서, 누구에게도 전화할 수가 없었다. (unlock: 🔓 열다, 잠금 해제하다)

⑤ 그녀는 너무 늦게 자고,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습관이다.

03 a 이 스낵은 설탕과 소금량이 적다. (low in: ~이 적은(낮은))

b 오늘날 하늘은 별들로 가득 차 있다. (full of: ~로 가득찬)

c 나는 책들을 한꺼번에 떨어뜨렸다. (all at once: 한 번에, 한꺼번에)

04 a How do you like ~?: '어떻게 먹는 걸 좋아하니?'라는 의미로 음식을 먹는 방식을 물어볼 때 사용한다.

b 음식의 재료를 말할 때에는 with를 쓴다.

05 ① How was ~?: '~는 어땠어?'라는 의미로 이미 완료된 상황에 대해 의견을 묻는 표현이고, ②~⑤는 모두 비슷한 의미로 상대방에게 권유, 제안, 의향을 묻는 표현들이다.

① 나와 먹은 샌드위치 어땠어?

② 나와 샌드위치 먹는 게 어때? (권유/제안 표현)

③ 나와 샌드위치 먹고 싶어? (의향 묻기)

④ 나와 샌드위치 먹는 건 어때? (제안 표현)

⑤ 나와 샌드위치 먹는 게 어때? (제안 표현)

06 ①②③⑤는 모두 들어 본 적이 없다는 표현인 반면, ④는 '아니, 나는 거기에 가 본 적 없어.'라는 의미로 장소 방문 경험을 말하는 표현으로서 문맥상 맞지 않는다.

① 나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② 전에 들어본 적 없어.

③ 아니, 들어본 적 전혀 없어.

⑤ 그건 내가 처음 들어보는 거야.

07 can't wait to ~는 '빨리 ~하고 싶다'는 의미이다. 대화에서 친구와 앱을 사용하여 미션을 달성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므로 ②가 적절하다.

① 나는 앱을 시작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있다.

② 나는 지금 당장 임무를 시작하기를 원한다.

③ 나는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

④ 나는 임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⑤ 나는 너와 함께 많은 물을 마실 수 있다.

08 a app for keeping a water-drinking habit에서 for keeping을 '~하기 위해서'라는 뜻의 to부정사 to keep으로 바꿔 쓴 문장이다.

b avoid drinking too much water all at once를 부정명령문으로 바꿔 쓴 문장이므로 Don't 뒤에 drink too much water all at once를 쓴다.

c We can get a cute emoji when we complete our daily mission.에서 미션 달성 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알 수 있다.

09 ⑤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even, a lot, far, much 등을 쓴다.

10 since는 현재완료와 함께 쓰는 전치사이므로 did exercise를 has exercised로 고쳐 써야 한다.

① 너는 숙제를 이미 끝냈니?

② 김 선생님은 5년 전에 영어를 가르치셨다.

③ 그녀는 작년부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④ 그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⑤ 우리는 1월부터 이 행사를 계획해 왔다.

11 exciting은 비교급을 만들 때 앞에 more를 붙이고, 부사 fast의 비교급은 faster이다. 두 문장 모두 '훨씬'이라는 강조 의미를 사용하므로 much, even, a lot, far, way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12 봄에 마라톤 훈련을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완료를 이용해 He has trained for the marathon을 쓰고 '봄부터'라는 뜻의 시간 표현은 전치사 since를 이용해 since spring으로 쓴다.

13 important는 앞에 more를 붙여 비교급을 나타내고 '훨씬 더'라는 의미 때문에 비교급 강조어구를 써야 한다. 비교 대상을 일치시키기 위해 than 뒤에 '나의 것'이라는 뜻의 소유대명사 yours를 써야 한다.

14 (C)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으면 이 단계를 따라오라고 말한 후 (B) 참여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A) '마지막으로'라고 말하며 당부 사항을 전달하는 순서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15 ② →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말은 없다.

⑤ → 친절한 코멘트를 남겨야 한다.

16 a [sharing → share] choose, take와 and로 연결되는 병렬구조이므로 share로 써야 한다.

17 설탕량은 음료수의 모양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c는 'ingredient(성분, 재료)'로 바꿔 써야 한다.

18 '탄산음료보다 훨씬 더 적은 설탕'이라는 뜻으로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 쓰였으므로, 비교급 less 앞에 much를 써서 much less sugar than으로 영작한다.

19 글쓴이는 탄산음료 대신 차를 선택했기 때문에 ② '난 네가 탄산음료를 선택했다는 말을 들어서 기쁘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① 정보 고마워. 나도 시도해 볼게.

③ 지금부터 나도 설탕이 덜 들어간 음료를 마시기로 결정했어.

④ 나 또한 탄산음료 대신 허브차를 마시고 싶어.

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의 설탕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

20 ② look 뒤에는 형용사가 온다.

⑤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too를 사용할 수 없다.

21 a 감자칩에 대해 언급한 이후에 그것에 대해 배운 내용을 말하고 있으므로, they는 '감자칩'을 가리킨다.

b 그것 대신 견과류를 선택했다고 했으므로, them은 앞에 나온 '감자칩'을 가리킨다.

c 감자칩보다 나은 것을 나타내므로, They는 '견과류'를 가리킨다.

22 Eating too much nuts can cause stomach problems.로 영작할 수 있으며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므로, '반드시 ~하다'는 의미의 must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다.

23 주어진 문장은 '하지만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매우 목이 말랐다'라는 내용으로 마라탕을 먹고 난 후와 목이 말라서 한 일을 나타내는 내용 사이인 ②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24 ① 은호는 어떤 메뉴를 먹었나? (→ 마라탕)

② 은호는 집에 와서 어떤 기분을 느꼈는가? (→ 갈증이 남)

③ 그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 물을 마심)

- ④ 마라탕에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 있는가? (→ 알 수 없음)
 ⑤ 소금의 영향을 줄이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 바나나)
 25 ③ [spicy → salty] 뒤에 짠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매워서'가 아니라 '짜서' 같증이 났다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Lesson 03 회중점검 모의고사

pp. 76~79

- 01 ⑤ 02 ④ 03 ⑤ 04 ⑤
 05 We need to check the facts. 06 ④
 07 Why don't we ask our homeroom teacher?
 08 ③ 09 ②, ⑤ 10 ⑤ 11 ⑤
 12 She read a book which[that] won a prize last year.
 13 (1) ② (2) who were (3) which was
 14 But doesn't the news sound strange?
 15 ⑤ 16 ③ 17 ② 18 ④, ⑤
 19 ③ 20 (a) unreliable (b) fake 21 ⑤
 22 ② 23 ③ → ④ → ⑤ → ⑥ 24 ④
 25 ②, ⑤

- 01 ⑤는 '믿을 수 있는'이라는 의미의 유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반의어 관계이다.
 02 ④ 일이나 스트레스 후에 쉬거나 즐거운 일을 하다 → relax (쉬다)
 03 look for: ~을 찾다 look into: 조사하다 look up: 찾아보다
 04 Have you heard of our school?은 '우리 학교 (존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니?'라는 의미로 학교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 물어보는 내용과는 다른 의미이다.
 05 '~할 필요가 있다'는 「need to + 동사원형」으로 쓴다.
 06 처음 듣는 이상한 소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We need to check ~)고 하였으므로 ④번과 같은 의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07 '~하는 게 어때?'라는 제안의 표현은 「Why don't + 주어 + 동사 ~?」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08 소년이 There's no information about a long summer vacation on the website.라고 직접 언급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09 선행사 the food가 사물이고, 빈칸 뒤에 동사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적절하다.
 10 ① runs → run(주격 관계대명사의 수 일치 오류)
 ② which → who
 ③ that her → whose
 ④ who → whose
 11 ③ which are → which is
 ⑤ which → who
 ④ which baked → which was baked
 12 사물 book이 선행사이고 뒤에 동사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을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연결할 수 있다.
 13 ③의 선행사가 a very famous painting으로 사물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who가 아니라 which를 사용해야 하며, 또한 선행사가 단수이므로 동사는 were가 아니라 was가 와야 한다.
 14 sound strange: 이상하게 들린다
 15 문장 뒷부분에 등장하는 동사 can be와 cause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필요하며, 단수 선행사 news와 맞춘 causes가 와야 한다.
 16 look into: 조사하다(check, study, explore, examine) ignore: 무시하다
 17 대화 초반에서 학생들이 초콜릿으로 된 점심 메뉴(감자튀김, 버거, 샐러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8 선행사 many photos of chocolate burgers and fries가 사물이므로 관계대명사 that이나 which를 써서 연결할 수 있다.
 19 Acky는 It's not always reliable!이라고 하였다.
 20 질문: Acky가 소셜 미디어에 대해 걱정하는 점은 무엇인가?
 대답: 소셜 미디어는 (a)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고, (b)가짜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21 rumor: 소문
 22 Grong의 The news seems fake. But we need to check different sources once more.라는 대사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
 23 사진이 음식 박람회에서 온 것임을 확인한 뒤 뉴스가 가짜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다른 출처를 더 확인할 필요를 느껴 급식실 관리자에게 문의했다.
 24 비슷한 종류의 루머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old) 있어 왔고, 비슷한 시기에 반복되어(repeated) 왔다는 의미이다.
 25 선행사는 many similar stories로 사물이고, 뒤에 동사가 이어지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혹은 that이 적절하다.

Lesson 04 회중점검 모의고사

pp. 80~83

- 01 ④ 02 ① 03 ⑤ 04 ④
 05 I can't wait to 06 ⑤ 07 ③
 08 ④
 09 A beautiful rainbow appeared after the heavy rain stopped.
 10 ②
 11 The soccer club was chosen by many students.
 12 ④ 13 ⑤ 14 ④
 15 can say that again 16 ③ 17 ⑤
 18 ② 19 the ice cream is made from soft tofu
 20 ④
 21 (1) Gangneung Central Market (2) potato balls
 (3) spicy and tasty
 22 ③ 23 ⑤ 24 ③
 25 (1) they watched ssireum (2) walked on Anmok Beach

- 01 ④는 명사와 형용사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동사와 명사 관계이다.
 02 ① '기차가 서는 곳'은 station(역)에 어울리는 영영풀이이다. rail은 기차가 움직이는 곳이다.
 03 • 나는 그 결과에 만족한다. (be satisfied with: ~에 만족하다)
 • 그들은 서로 잘 지내고 있다. (go well with: ~와 잘 지내다)
 • 이 케이크는 치즈로 만들어졌다. (be made with: ~의 재료로 만들어지다)
 04 「can't wait to + 동사원형」은 '~을 너무 하고 싶다'는 의미이다. 방콕에 너무 가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다는 말에 '그거 안됐다'라고 답하는 것은 어색하다.
 05 I am excited to ~는 '~하는 것이 신나다'라는 의미로 어떤 일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I can't wait to와 같은 의미이다.
 06 ⑥ Why don't we ~? 우리 ~ 하는 게 어때?
 ③ How about ~? ~는 어때?
 ④ Which do you prefer ~? ~ 중에서 무엇을 더 선호하니?
 07 ③ 버스킹과 같은 즐길 것들이 많다고만 언급할 뿐 공연을 하거나 볼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
 08 선후를 묻는 표현에 (B)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말하며 (C) 이번 주말에도 새로운 영화를 볼 것이라며 추가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A) 너는 어떤지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하는 순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09 시간상 먼저 있었던 일을 after 다음에 연결한다. then은 '그리고 나서'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after의 뒤에 비가 멈췄다는 내용을 쓴다.
 10 시간 순서상 나중에 한 일을 before에 뒤에 쓰되, 주어 동사가 갖춰진 문장

으로 쓴다.

- 11 많은 학생들이 축구 동아리를 선택했다. → 밑줄 친 부분을 주어로 하기 위해서는 수동태로 전환해야 한다. 문장의 시제가 과거시제이므로 be동사의 과거형, choose의 과거분사형인 chosen을 사용한다.
- 12 ㉠ 주어가 복수이므로 were를 써야 한다.
㉡ 수동태가 되어야 하므로 do의 과거분사 done이 와야 한다.
㉢ 돈이 훔쳐진 것이므로 was stolen이 되어야 한다.
- 13 • 전주는 맛있는 비빔밥으로 유명하다. (be known for: ~로 유명하다)
• 버스는 혼잡 시간대에는 사람들로 붐빈다. (be crowded with: ~로 붐빈다)
• 이 탁자는 나무로 만들어진다. (be made of: ~로 만들어지다 (물리적 변화))
- 14 ㉣ 레일 바이크는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전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 15 You can say that again.은 '강한 동의'의 표현이다.
- 16 ㉢ 레일 바이크 이야기를 하다가 전기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시도해 보자고 하는 말이다.
- 17 ㉤ 레일 바이크를 언제까지 탔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 18 ㉡ 전통 음식을 판매한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갑자기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드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색하다.
- 19 부드러운 두부가 아이스크림이 되는 것은 화학적 변화이다. 따라서 be made from을 써야 한다.
- 20 ㉣ 쫄깃한 것은 웅심이 속 감자불의 식감이다.
- 22 (A) wish for: ~를 바라다
(B) 'believe that + 주어 + 동사': ~을 믿다 (believe in + 명사: ~를 믿다)
(C) 소풍이나 여행 앞에는 전치사 on을 쓴다.
- 23 주어진 문장은 '나는 그것이 우리의 머리를 빛나게 만들 것이라고 들었다'라는 의미로 머리카락이 윤기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것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것이므로 ㉤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24 창포물에 머리감기 이야기를 하는 도중 '창포'가 한국의 약초임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불운을 막아준다고 믿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25 단오제에서 했던 일들은 씨를 구경과 창포물에 머리감기와, 안목해변 걷기이다. 요약문이 과거시제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모두 과거시제로 써야 하는 것에 유의한다.

Lesson 05 회중점점 모의고사

pp. 84~87

01 ㉢ 02 ㉡ 03 ㉠: up ㉢: up ㉣: on

04 ㉢ 05 ㉤ 06 ㉠

07 민지에게 가서 사과하고 기분을 상하게 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말한다.

08 ㉢ 09 ㉣

10 ㉢ / I had the doll which my dad bought for me.

11 ㉢, ㉤ 12 ㉤ 13 makes me finish it

14 ㉢ 15 ㉠ 16 ㉤

17 make you feel down 18 ㉣ 19 ㉤

20 ㉢ 21 ㉣ 22 ㉤

23 ㉠ trust ㉢ best ㉣ win 24 ㉠

25 Positive words make you learn, grow, and understand better.

- 01 ㉢은 앞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필요한 자리이다. friendly는 '친절한, 우호적인'이라는 의미로 명사에 접미사 -ly가 붙어서 만들어진 형용사이다.
- 02 ㉡ down은 '우울한, 기분이 침체된'이라는 의미로 기쁘거나 재미있는 감정이나 기분과 반대되는 의미로 쓰이는 형용사이다.
- 03 • mess up: 망치다, 엉망으로 만들다
• cheer up: 응원하다
• on one's mind: ~의 마음속에
- 04 ㉢ 도움이 필요하지 묻는 말(Do you need ~?)에 '불우이웃을 돕는 사람들

안다(I know who ~.)'고 답하는 것은 어색하다.

- 05 바로 위에 소년이 했던 잘못된 일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C) '그러면 안 된다'는 반응과 사과를 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표현이 이어지고 → (B) 그에 대한 대답을 한 후 → (A) 조언을 하는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 06 Let me help you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의미이다.
- 07 Cindy가 제안했던 방법 you should tell her you're sorry and you didn't mean to hurt her feelings.에서 남자아이가 앞으로 할 일을 짐작할 수 있다.
- 08 ㉢ [studied → didn't study]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는 상황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studied much)'라고 하는 건 어색하다.
- 09 사역동사 make와 have를 동사 자리에 사용하였으므로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온다.
- 10 ㉢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앞에 the doll이 위치하므로 선행사를 가리키는 대명사 it은 불필요하다.
- 11 선행사가 사물이므로 which나 that을 쓸 수 있으며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므로 생략도 가능하다. 주어진 선행사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삽입된 경우 수 일치에 주의한다.
- 12 ㉤ 나의 휴대폰이 수리되는 것이므로 수동 관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fix → fixed가 되어야 의미가 서로 일치한다.
- 13 김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makes가 자연스러우며, '사역동사 + 목적어 + 동사원형 ~'의 형태로 쓴다.
A: 와, Tom. 나는 네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지 몰랐어.
B: 별로 (좋아하지 않아). 사실, 이거 내 숙제야. 김 선생님이 나에게 내일까지 이것을(숙제)을 끝내라고 하셨어.
- 14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 '십 대들에게 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 15 'we choose them(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다)'이라는 문장이 선행사 the words를 꾸며줘야 한다. 이런 경우 관계대명사 목적격 용법을 쓸 수 있다. 이때 the words를 가리키는 대명사 them은 불필요하므로 which[that] we choose라고 쓰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 16 ㉤ '부정적인 생각은 너를 슬프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의미로 윗글의 우울한(down)과 stop trying을 sad와 give up으로 표현하였다.
① 자신을 격려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② 너는 실수했을 때 연습을 그만둬야 한다.
③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의 의미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④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다음에 더 잘하게 도와준다.
- 17 '목적어(you)를 목적격보어의 행동(feel down)을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사역동사 make를 사용하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원형을 쓴다.
- 18 ㉠ keep -ing는 '계속해서 ~하다'라는 의미이다.
- 19 focus on your own growth에서 다른 사람의 성장이 아닌 '자신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20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은 너를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의미로 쓰인 것은 ㉢이다.
①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은 너를 자라게 한다.
② 너는 부정적인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랄 수 있다.
④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은 너를 자라게 한다.
⑤ 너는 자라기 위해 부정적인 말을 사용할 수 있다.
- 21 글의 서두에서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타인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B) 비난하는 것의 단절 → (C) 대신에 지지와 응원을 해야 한다. → (A) 긍정적인 말이 팀워크를 강화시킨다의 순서로 배열되어야 적절하다.
- 22 '대신에,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고 그들을 응원하세요'에서 문맥상 가리키는 것은 글의 서두에서 말한 others이다.
- 23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므로 '내가 믿는(trust) 팀원, 최선(best)을 다하다, 다음 경기를 이기다(win)'라는 표현이 되도록 한다.

- 24 이 글의 첫 시작이 ‘결국(in the end)’라고 언급하면서 ‘말은 사람의 생각, 행동, 관계를 바꾸는 힘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말이 가지는 영향력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① 부정적인 단어는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슬프게 만들 수 있다.
 ② 모든 사람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말해야 한다.
 ③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④ 우리는 수업시간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한다.
 ⑤ 네가 배운 모든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 25 본문은 결국 ‘긍정적인 말(positive words)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를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는 「사역동사(make) + 목적어(you) + 동사원형(learn, grow, and understand better)」의 형태로 써야 한다.

1학기 모의고사

pp. 88~91

- 01 We need to check the school website to make sure it's true.
 02 ⑤ 03 ② 04 ② 05 ④
 06 ③ 07 up 08 ④
 09 He has gone to Paris 2 years ago. 10 ④
 11 ⑤ 12 ①, ③ 13 ② 14 ④
 15 ㉠: Pharaohs ㉡: Sumin and Minji 16 ⑤
 17 ④ 18 ③ 19 ②
 20 ④ 21 The rail bike is powered by electricity.
 22 ③
 23 search online with smartphones / upload the images to a reverse image search engine
 24 ⑤
 25 Negative / feel down / try / positively / learn / improve
- 01 ‘~할 필요가 있다’, 즉 필요성을 표현하는 글을 쓸 때는 「주어 + need to + 동사원형」으로 쓴다.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은 to부정사를 이용한다. 따라서 to를 하나 더 추가하여 작문해야 한다.
- 02 Why don't we ~?와 How[What] about ~?은 모두 제안하는 표현이다.
- 03 ② 온라인 게시물을 본 것은 소년이다.
 ① 소년은 긴 여름 방학에 대해 들었다.
 ③ 소년은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했다.
 ④ 소녀는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어 한다.
 ⑤ 그들은 내일 교무실에 갈 예정이다.
- 04 Have you ever ~?는 ~해본적이 있는지 경험을 묻는 표현이다. 대답은 ‘해본 적 있다’ 혹은 ‘해본 적 없다’는 경험으로 대답한다. 따라서 ② ‘아직 못들 어봤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알고 싶어.’가 가장 자연스럽다.
 ① 나는 매일 밤 책을 읽고 있어.
 ③ 나는 프랑스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해.
 ④ 오, 그래. 그게 맞아.
 ⑤ 나는 내 역사 수업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 05 ④ 내 ‘과학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어’에 대한 대답은 제안하거나 도움을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B의 대답은 ‘그걸 하게 되어 너무 신나’라는 표현으로 A의 말과는 무관하다.
- 06 ③ 어떤 것이 시작된 곳 = 근원 source
 similar: almost the same, but not exactly: 거의 비슷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은
 07 wake up to : ~때문에 일어나다
 look up : 찾다
 cheer up : 응원하다

- 08 나머지는 모두 반의어 관계이지만, ④는 유사한 의미이다.
 ④ 가짜, 모조품 : 허구 소설
- 09 그가 2년 전에 파리에 가서 지금도 여전히 있으므로 ‘떠나고 여기 없다’는 의미의 have gone을 쓴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므로 has로 변경하였다.
- 10 ④ 현재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waited를 써야 한다. ①②③⑤는 모두 사역동사가 쓰였으므로 목적격보어 자리에 동사원형 wait를 써야 한다.
- 11 ⑤ the glass가 목적어이므로 수동태의 주어는 the glass가 되어야 한다.
 (The glass was filled with milk by me.)
- 12 주어진 문장의 밑줄 친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절에 주어가 생략된 형태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온다. ①③은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고, 나머지는 모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 13 전반적으로 강릉이라는 장소를 설명하고 있으며, 두 번째 문장 I want to recommend Gangneung.에서 여행을 추천하는 글임을 알 수 있다.
- 14 점심 식사 후 추구를 한다는 것이 주어진 내용이다. ④ 이후부터 축구 이야기가 나오므로 ④ 위치가 가장 알맞다.
- 16 수민이가 꿀을 넣고 이겼으며, 민지가 ‘멋진 꿀이었어’라고 칭찬했다.
- 17 마라탕을 먹고 난 후, (C)집에 돌아왔을 때 갈증을 느꼈으며 → (A)물을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고 → (B)마라탕이 너무 짜다고 생각한다는 순서가 가장 적절하다.
- 18 전체 글이 과거시제로 쓰였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결심이 유효해야 하므로 현재완료 시제로 나타낸다.
- 19 ② 비교급을 수식할 때는 very가 아닌, much, a lot, far, even, way 등을 사용한다.
- 20 레일 바이크에 대해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먹어보자’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문맥상 let's try it가 적절한데, try는 시도하다, 노력하다 외에도 한번 먹어보다 등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시도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 21 (A)는 문장의 목적어이며,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으로 써야 한다. 주어가 the rail bike가 되므로 is를 쓰고 동사 power를 과거분사형인 powered로 바꾼다. 능동태 문장의 주어였던 Electricity는 by electricity로 쓴다.
- 22 ③ 초콜릿 버거와 감자튀김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지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 23 소문의 출처 찾기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검색
 사진 체크하기 → 역이미지 검색 엔진에 이미지를 업로드하기
- 24 이 글은 잘못했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내용으로 ⑤가 가장 알맞다. 실수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나 ①처럼 실수 자체의 중요성을 말하는 내용은 아니다.
- 25 주어진 글의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뒷 내용과 연결시키면 말이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찾아 쓰면 된다.